

(성경 칼럼 : 요한 복음 1:14)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스러운 주제는 동정녀 탄생도, 죽음에서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기적들 (물위를 걷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 등)이 아니다. 가장 신비스러운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적 존재로서 100%의 신성을 잃지 않고 완벽한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란 주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단 한줄의 문장으로 선언했다.(요한 1:14)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가장 신비스러운 결과가 가장 평범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오히려 놀라워해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점에 대해서 먼저 글에서 밝힌대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발생 했든지 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특별하거나 신비스러운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신비스러운 결과이지만 인간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하는 육신의 생성과정과 발달과정을 완벽하게 거쳤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아기의 시절과 우리와 같은 소년시절을 보냈다. 예수님은 우리 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눅 2:52). 다시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은 다른 우주의 세계에서 경험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입증해 준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은 그 평범을 초월하는 초 자연적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지만 말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또 한가지는 하나님께서 신적 존재이면서도 신성을 잃지 않고 완벽한 인성을 갖춘 인간이 되셨다는 요한의 선언은 더 나아가서 누가 ‘하나님의 영’ 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판단의 결정체가 된다는 것이다. 요한은 그의 또다른 저서인 요한일서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

의 영' 을 소유 했다고 주장한다 (요한일서 4:2,3) 필자가 생각하기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발생하는 성경해석의 잘못된 주해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들은 가만히 들여다 보면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에대한 그릇된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는 이 한줄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영원하신 말씀이며 그분이 천지가 창조될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 되었으며 (히 1:2),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히 1:3) 진리를 의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셨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의 일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 되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강단 아래와 차별된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신비스럽지만 가장 평범하게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역사 하신다. 우리가 살아 가는 현실의 세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떤 고난도 또한 불미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거나 불안해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예수를 믿고 축복 받아 삶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당연한 결과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요한이 선언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이 한 소절의 말씀을 평범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